

4월의 사양관리



1. 이달의 날씨 임 병 규

장기간 대륙에 중심을 두고 쌀쌀한 북서 계절풍을 몰아오던 대륙성 고기압이 이달로 접어들면서부터 완전히 살아지는 한편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장출하기 시작하여 때때로 남고북저형(南高北低型)의 기압 배치를 이루기도 한다.

또한 이달에는 대륙으로부터 동진된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 나라 부근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광범위한 고압대를 형성하게 되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별로 없으며 특히 상순에는 맥류를 비롯한 각종 농작물들이 한해할 입을 정도로 건조한 날씨를 보여 닭들에게는 더없는 좋은 계절이다.

그러나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고압대가 해소되고 기압골과 저기압이 계속 지나기 때문에 몇차례에 걸쳐 비가 내리므로 미리 대비하여 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음 이달의 기온 분포를 보면 초순에는 평균

< 표 2 > 이달의 일출·일몰시간과 일조시간(시·분)

지역	서울	제주	목포	부산	광주	전주	대구	강릉
1일	일출시각	6.19	6.22	6.22	6.11	6.20	6.19	6.11
	일몰시각	6.54	6.54	6.55	6.45	6.53	6.53	6.47
	일조시간	12.35	12.32	12.33	12.34	12.33	12.34	12.36
11일	일출시각	6.04	6.10	6.09	5.58	6.07	6.05	5.56
	일몰시각	7.03	7.01	7.03	6.53	7.01	7.01	6.55
	일조시간	12.59	12.51	12.54	12.55	12.54	12.56	13.00
21일	일출시각	5.50	5.58	5.57	5.46	5.54	5.52	5.42
	일몰시각	7.12	7.09	7.11	7.01	7.09	7.09	7.05
	일조시간	13.22	13.11	13.14	13.15	13.15	13.17	13.23
30일	일출시각	5.39	5.47	5.46	5.35	5.43	5.41	5.30
	일몰시각	7.20	7.15	7.18	7.08	7.16	7.17	7.13
	일조시간	13.41	13.28	13.34	13.33	13.33	13.36	13.43

※ 일출시각은 오전, 일몰시각은 오후 시각임.

2. 육추 기간 중의 각약 대책

산란용 및 증계용 병아리의 경우 초생추부터

기온 10°C 를 넘지 못하나 하순경에는 최고 20°C 이상을 나타내는 더운 날씨가 된다(표1 참조).

< 표 1 > 4월의 기온(0°C)와 상대습도(%)

지역	평균기온	평균최고기온	평균최저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기온교차	상대습도	관내도
춘천	10.5	17.9	3.2	26.9	-2.3	21.7	—	—
강릉	11.5	17.6	6.5	26.6	0.9	18.9	59	—
서울	10.5	16.5	5.3	26.4	0.2	18.6	63	—
수원	10.3	16.3	4.2	26.0	-2.9	21.9	—	—
대구	12.1	18.7	6.1	24.9	1.4	16.8	61	—
전주	11.3	17.5	5.6	26.6	-0.6	19.6	70	—
광주	11.4	18.2	5.4	24.8	0.8	16.2	72	—
부산	12.5	17.1	8.9	21.5	4.7	10.9	66	—
제주	12.3	16.9	8.3	24.2	2.4	13.3	67	—
서귀포	13.3	16.9	9.7	20.3	5.3	12.6	72	—

4월로 접어들면서부터 일조시간도 많이 연장되어 월초에는 12시간 34분이고 월말에는 13시간 41분(서울지방의 경우)이나 되어 일조시간에만 의존해 오던 산란계는 자연적으로 좋은 산란율을 기대할 수 있겠으나 겨우내 점등을 하여 계속 14시간 이상의 점등시간을 유지해 온 산란계는 계속 점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일조시간이 길어졌다고 하여 점등을 중단하게 되면 산란율은 점점 저하되고 환우가 오기 쉽다(표2 참조).

들어온 병아리는 이제 육성기에 들어간다.

대개의 경우 유추기간에는 폐사율도 적고 건강하게 자라는 병아리가 이 기간에 들어서면서부터 발육도 좀 뜨고 특히 원인 모를 각약증 및 각마비 증세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병아리를 길러본 사람이면 그때마다 그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힘들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려웠던 것을 느꼈을 것이다. 각약이나 각마비를 일으키는 원인을

① 어떠한 질병의 일반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② 고온 다습·저온 저습·환기 불량·밀사·기계적인 타격으로 인한 골절 등과 같은 관리의 소홀에서 오는 경우

③ 배합사료 중의 무기물이나 비타민과 같은 각종 미량 영양소의 결핍 및 불균형으로 오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간에 그 원인은 정확 신속히 규명하여 그 원인을 해소시켜 주어야 하겠지만 그 원인 중에 서로 관리자의 태만이나 광복한 관리에서 오는 예가 의외에도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급수기와 급이기는 충분히 마련하여 병아리가 물이나 모이를 먹기위해서 3m(10尺) 이상을 걸어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만일 급이 장소가 협소하여 고루 사료 섭취를 하지 못하면 잘 균형잡힌 배합사료를 주더라도 위의 ③경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3. 청초 급여에 대한 재고

최근 가금영양학의 발달은 병아리나 닭에게 신선한 청초나 부식토를 배합사료 외에 별도로 급여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발육이나 산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배합사료에는 소위 사료첨가제를 뺄 수 없는 존재임은 이미 상식화된 사실이다.

그러나 계절적으로나 입지적·경영적 조건으로 보아 신선한 청초를 적당히 급여하는 것이 꼭 유리할 경우도 있는데 청초를 급여할 때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지 않으면 불의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① 청초는 섬유질이 적고 부드러우며 닭이나 병아리가 즐겨 먹는 것이어야 한다.

② 닭의 내부 기생충(회충·촌충 등)이나 질병

을 감염시킬 염려가 없는 깨끗한 곳에서 채취해야 한다. 타 양계장 근처나 계분을 버리거나 사용한 곳은 삼가한다.

③ 유기인제나 유기염소제와 같은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한 채소는 삼가고 만일 의심나는 것은 깨끗한 물로 몇번 씻은 다음 급여한다.

특히 과수원 안이나 과수원 부근에서의 청초 채취는 절대 삼가하여야 한다.

4. 계사내의 살충제 살포

계사 내외에 크래졸과 같은 살균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하여 여러가지 병원균을 박멸시키는 작업과 겸하여 이달로 집어들면서부터 여러가지 유해 곤충(파리·모기 등)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살충제를 살포한다.

특히 양계장의 두통거리인 닭진드기는 직접적으로 닭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존재이며 한번 발생했던 계사에는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또 완전 박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눈에 띄기 전에 미리 미리 주기적으로 살충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사용되는 살충제는 우선 값이 비싸지 않아야 하겠지만 약효가 좋을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저독(低毒)이어서 닭이나 병아리에게 약해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 사용할 것이다. 흔히 쓰이는 유기인제는 아무리 저독성인 것이라 하더라도 취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예방 접종인 철저

계두의 만연은 모기의 발생과 거의 때를 같이 하기 때문에 모든 닭은 이달 안으로 계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뉴캐슬 예방 접종은 체내 면역이 소실되기 전에 재접종 하여야 하는데 예방 접종으로 인한 산란율의 저하를 걱정한 나머지 접종 예정일을 넘김으로 하여 만약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은 예방약은 사용하기 전에 만든 메이커에 문의하여 취급 및 사용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방 접종 후에는 약 2주일만에 채혈을 하여 역가 형성 정도를 검사받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역가검사에 대한 문의는 시흥군 안양읍에 소재한 국립가축위생연구소에 하면 된다.